

價値意識의 轉換



韓國外大 總長 李 康 懋

일제의 절곡에서 풀려나 각계 각층의 모든 국민이 민주 시민으로서의 경험도 없이 새로운 自由民主主義 국가의 건설이라는 원대한 목표를 향하여 정진하여 온 지도 어언 반세기의 세월이 흘렀다. 해방이라는 벅찬 감격 속에서 오직 자유·민주·평화를 절규하던 뜻내기 민주 시민의 요람기를 지나자마자, 국가·사회적인 변환은 문자 그대로 격동의 와중이었다고 말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각자의 생애를 설계하고 참된 삶의 역사를 창조하여 살아 온 시간은 항상 단속적일 수밖에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새 나라를 건설하기에 열중하는 한편, 국방에 있어서도 불붙는 투지와 애국의 정열이 발양되어 가던 때가 있었지만, 우리의 현실을 적절하게 극복하면서 독특한 創意와 과학적인 合理性을 최대한으로 발휘할 수 있었다고는 말할 수 없을 것이다.

못별과 같은 정치인들이 민주 국가 건설과 자유 체제 확립을 지상 목표로 하는 정책을 표방하고 국가 이익을 위하여 분기하여 왔지만, 民生에 드리우는 불안한 그늘은 어제도 오늘도 거의 가셔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 감출 수 없는 작금의 현실이다. 그리고 보면 우리는 해방 이후 반세기를 정치·사회적 不確實性 속에서 浮沈하여 왔다는 것이 공통적인 現實認識이 아닌가 한다. 민주 정치의 완성을 향한 공동의 목표가 아직도 미흡한 상태에 있다고 한다면, 그 책임은 누가 짊어져야 하는 것인가? 두말할 것 없이 그것은 정치 지도층에 있는 동시에 우리들 국민 대중에게도 마땅히 돌아가야 한다. “어떤 국민이든 자기의 능력에 맞는 정도 이상의 정치 현실을 기대할 수 없다”라는 말은 모든 민주적 기능이 결코 정치 현장에서만 적용되는 특정인의 기량이 아니라, 공동체의 구성원 모두의 행위와 생활 윤리에서 발원하여 다시 정치 현장으로 회귀하는 동일 구조의 기능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여기서 일체의 정치 활동의 핵심적 기능을 담당하는 계층을 포함하여 현실에 동참하여 사회·현황을 투시하고 비판할 만한 대다수 구성원이 해방 이래 고도의 지적 혼련을 쌓아 온 중·장년 세대라는 점에 주목하여야 하며, 정치 일선의 주역으로 등장하여 영광과

고난 그리고 때로는 다가온 빈축을 함께 떠안은 계층도 다름아닌 이 세대라는 점이다. 그렇다면 民主市民을 배양함에 공극의 목표를 설정한 저간의 教育理念이 과연 얼마만큼 우리의 현실에서 구현되었으며, 현실을 고양함에 열다나 기여하였나를 냉철하게 반성해 보아야 할 것이다. 여기에 대한 해답—고등교육이 수행한 기능—은 간단 명료하다. 이른바 大學教育이 본연의 궤도에서 많이 이탈하여 왔다는 점을 우리 모든 대학인은 결혀하게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다. 또한 거기에서 오는 因果現象은 오늘에 있어서 극명하게 학원가에서 나타나고 있다. 사회의 지도층을 배양함에 공극의 목적을 두는 대학에 있어서, 상당히 오랜 동안 인간 형성을 도외시한 기능 인력의 양성이라는 偏頗的인 教育을 펴 내려온 결과가 오늘날과 같은 균형을 잃은 사회 현상을 낳게 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현대사를 조명하는 ‘統制 대 抵抗’ 제하의 대토론에서 행한 주제 발표 중 다음과 같은 教育政策에 대한 요지는 그대로 과거와 현재를 꿰뚫어 그의 인과 관계를 지적하였다고 볼 수 있다. 즉 “첫째가 구상한 고등교육의 기본 지표는 국가 경제 발전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 양성과 반공 정신에 투철한 인간 형성이었다. 그는 서구의 전통적 대학 이념인 교수의 자유, 학습의 자유, 진리 탐구 등을 싫어했으며, 민주화를 위한 대학인의 주장 또는 운동을 옹공으로 간주하여 가차없이 차단했다. (중략) 그러나 결과만을 따져 볼 때 긍정적인 면도 있다. 전통적으로 문과 우세의 고등교육을 이공계 우선으로 전환했고, 경제 성장을 위해 과학 기술 인력을 양성하였다. 만약 그가 민주주의 사회의 대학 이념을 比較學的으로 이해하고 과학 기술 교육과 인간 교육의 결합을 통한 全人教育을 실천했다라면 오늘의 대학은 좀더 자유로운 모습을 지녔을 것이라고 본다”라는 주장이 그것이다.

우리는 그동안 物質文明의 급속한 발달로 일상 생활에 커다란 변화를 맞이하여 역사의 오점으로 치부되던 빈곤의 굴레에서 벗어난 것은 사실이다. 아직 빈부의 도량이 상존하지만, 과소비라는 신조어가 생길 만큼 물질 생활의 풍요를 누리고 있다. 필시 이같은 현상은 전기한 바와 같은 대학교육의 목표가 끼쳐 준 결과요, 경제 성장이라는 실질적인 측면으로는 역사 발전의 일면으로 환영할 일이다. 그러나 우리 대학인은 고도한 경제 성장의 그늘에서 위축된 精神啓發의 괴리 현상을 간과해서는 아니되고, 그것을 극복함이 없이는 참된 民主社會의 完成이란 피상적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제 바야흐로 우리들의 大學은 학생과 교수의 진솔한 人間對話로 결속되어야 하며, 眞·善·美의 새로운 인식과 발견으로 올바른 人間歷史를 창조하는 轉換期의 역할을 짊어져야 할 것이다. 거기에는 누적된 편견의 구각을 벗고, 이론이나 학설을 초월한 생활 감정의 교감·감화에서 비롯되는 人間美의 개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아무리 과학 문명을 구가할지라도 人間革命이라고 할 수 있는 의식의 전환이 없이는 가식적·피상적인 문명에서 유명할 따름이다. 인간 혁명에서 시작하여 民主大道를 매진하여야 한다. *